

# 필문 이선제 墓誌 20년만의 광주 귀향 특별전

(묘지)



지난 1998년 일본으로 밀반출돼, 올 봄 광주로 귀향한 이선제 묘지(墓誌).

국가 보물지정 기념...광주박물관 12월 10일까지  
일본 밀반출 후 2016년 소장자 유지 따라 올봄 돌아와  
묘지 모티브 김상연 설치작 전시·25일 큐레이터 대화도

국가지정 보물 제 1993호로 지정된 필문(筆門) 이선제 묘지(墓誌)의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이관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조선 전기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선제(1390-1453)는 세종 때 집현전 학사를 지낸 대학자다. 본관이 광주(光州, 광산)인 이선제는 1390년 대촌면에서 태어났다. 1419년(세종 1) 문과에 급제해 집현전 부교리, 강원도 관찰사, 예문관 제학(중 2품)을 지냈으며 '태종실록'을 편찬하는데 참여했다. 사후에는 예문관 제학에 추증됐다.

조선대부터 광주교대까지의 팔차선도로를 '필문로'로 칭한다. 지난 1988년 그의 학덕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는데, 광주의 중요한 도로 가운데 하나다.

이번 특별전은 '필문 이선제 묘지 20년만의 광주 귀향'이라는 주제로 12월 10일까지 광주박물관 전시관 1층 중앙홀에서 열린다. 국가 보물 지정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선제 묘지(墓誌)는 지난 1998년 6월 국내 문화재발매단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돼 오랫동안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2014

년 국외소재문화재단 노력으로 묘지의 소재를 알게 됐다. 불법 반출유물 사실을 모르고 구입했던 일본인 소장자와 재단의 면담이 이루어진 것. 2016년 소장자 사망 후 고인의 유지에 따라 2017년 9월 유족이 기증했다.

묘지가 광주박물관으로 옮겨진 것은 올해 3월이었다. 광주에서 도굴돼 반출된 유물이기 때문에 광주로 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묘지에는 이선제의 생몰년 및 행적, 가계 관련 내용을 담은 총 248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묘지의 앞면, 옆면, 뒷면 세 면은 글자를 음각으로 새기고 백상감토를 발라 굽어낸 후 마감하는 상감기법으로 표현했다. 특히 15세기 중반에 제작된 분청사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희소성 있는 '위패' 형태인 점도 높이 평가돼 지난 1998년 6월 보물 제1993호로 지정됐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지역의 설치미술가 김상연 작가의 '필문 이선제 묘지,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의 '샘(泉)' 작품도 같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샘(泉)'은 과거와 현대의 만남을 전시



김상연 작 '샘1-1'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묘지가 20년 만에 광주로 돌아온 의미를 반출과 귀향, 생애와 업적을 상징하는 20개의 패널로 구성했다.

전시기간에는 오는 27일 오후 5시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펼쳐지며 10월 27일에는 이선제의 후손인 광산이씨도문종과 호남 사학회가 공동으로 '호남사립과 이선제' 주제로 학술대회도 연다.

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기증문화재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국내외 문화재 소장자들의 기증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570-705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88번째 광장음악회 15일 남구 물빛근린공원

88번째 광장음악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에서 열린다.

2006년부터 음악으로 이웃을 만나온 광장음악회는 이번에는 '음악 예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객을 찾아간다.

이번 공연은 클로드 볼링의 '아일랜드 소녀' 연주로 시작한다. 소프라노 신은선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곡 '밭'과 '아무것도' 등을, 바리톤 공병우는 베를리오즈의 연가곡 '여름밤' 중 '호수에서'와 '미지의 섬' 등을 노래한다.

소프라노 임선아는 로베르트 슈만의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와 '내 손에 낀 반지'를, 테너 윤승환은 헨리 뒤파르크의 '슬픈 노래'와 구스타프 말러의 '아름다운 때문에 사랑을 한다면' 등을 노래하며 가을 밤의 정취를 더한다.

이날 공연 처음에 협연한 플루트 김윤희, 첼로 박효은, 피아노 이우정이 독주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불꽃강괴테의 시에 독일의 작곡가 프리츠 베르너가 곡을 붙인 합창곡 '들장미'를 다함께 연주하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완도 보길도 윤선도의 흔적 오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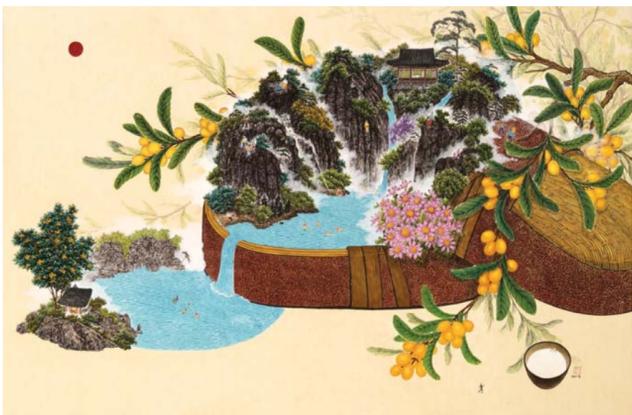
광주신세계갤러리 30일까지  
'남도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전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지난 1998년부터 남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 자연환경을 주제로 삼은 '남도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전을 열고 있다. 전국에서 선정된 작가들이 각 지역을 전문가와 답사한 후 그곳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해 전시하고 책으로 묶어내는 프로젝트다.

올해 작가들이 찾은 곳은 윤선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완도 보길도다. 5월 마지막 주 답사에 나선 작가들은 13년간 은둔 생활을 한 윤선도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부용동 원림, 낙서재, 동천석실 등을 둘러봤다.

작가들은 당시의 느낌을 담아 작품을 제작했고 '연꽃을 담은 이상향, 보길도'를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상연·박일구·양나희·하루·김단비 등 광주지역 작가들과 김건일·김시영·김효숙·송은영·이지영·차규선·최정우·이진영·왕사 등 17명의 작가가 참여해 보길도의 자연과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 등을 회화, 드로잉, 입체, 설치로 자유롭게



하루 작 '산수를 담다-보길도 기행도'

표현한 40여점을 전시한다. 골판지로 작업하는 양나희 작가는 색색 지붕의 집이 모여있는 보길도 마을의 모습을 그린 '살, 풍경'을 전시하며 김건일 작

가는 초목빛 숲과 하늘빛 물이 어우러진 보길도의 자연환경을 '어깨 위에 서서'라는 작품으로 표현해냈다. 또 김단비 작가는 환상적인 모습이 인상적인 '별유전지'



왕사 작 '외딴 섬'

를 선보이며 김지영 작가는 '어서와 보길, 세연정, 개구리 연꽃' 작품을 통해 보길도 풍경을 유쾌하게 묘사했다. 문의 062-360-1271. /김미은 기자 mekim@

## 농촌의 가을 인심, 함지박 가득 넘치네

비움박물관 14일~11월 14일

선조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민속품을 만날 수 있는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오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가을 기획전 '함지박'전을 개최한다. 비움박물관은 계절별로 주제를 정해 4층에서 기획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명의 뒷마당, 한반도의 가을인심 그 진정한 가치'를 주제로 농촌사회의 풍성했던 인심을 담은 민속품을 선보인다. '되로 주면 말로 받는다'는 속담에 깃든 농부의 정성과 서로 돕고 나누던 어진 마음을 함지박에 담았다.

주요 전시품은 집집마다 하나쯤 있었던 절구통과 절구공이, 함지박에 쌓여 있던 곡식들을 음식으로 만들어 쌓아 놓았던 모반, 함지박 상단에 흙을 파 곡식의 이물질을 제거했던 이남방 등 1000여점이다.

전시 개막일인 14일에는 무료 개방한다. 한편 비움박물관은 오는 14일까지 광주



시 동구정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나는 보물이다' 전시를 개최 중이다. 이번 전시는 밤을 지는 데 사용했던 물건들인 솔, 화로, 밥그릇, 대접 등과 등잔 등 빛을 밝히는 물건들을 설치해 공동체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민속품들이 박물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있도록 기획한 무료 방문 전시 프로그램 '찾아가는 민속박물관'은 광주 동구청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유휴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222-66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평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9월 23일~25일은 추석휴무입니다. 26일(수)부터 정상적 모시겠습니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훔플러스 건너편